

외국인 긴급행정명령 연장

군산시, 오늘부터 31일까지 1주일 연장... 생말공원 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군산시는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행정명령을 1주일 연장했다.

24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25일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7일간 관내 외국인 기업체 고용기업 및 사업장(주) 고용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6일간 외국인 근로자 3,207명을 비롯해 이들과 연관된 내국인 5,789명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행정명령 이후 선제검사 결과 24명의 외국인 근로



로자와 16명의 내국인 등 총 40명이 감염된 것을 조기에 확인했다.

특히,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다수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무증상 확진이 많아 더 많은 피해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 활동지역에 대한 특별점검과 재검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1주일 연장의 결단을 내렸다.

또, 원활한 검사를 위해 생말공원(오식도동 508)에서 25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하루더 운영한다.

보건소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오는 31일까지(오전 9시 ~ 18시)까지 운영되며 관내 산업단지, 외국인 고용 건설현장 농업분야 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역차의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모든 외국인들이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한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선정

군산시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전문가 현장실사 거쳐

군산시는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한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실적을 평가한다. 지난 7월 전국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전문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18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실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특수한 섬 지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마련과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에 힘쓴 결과, 선유도가 지난 2020년 방문객 288만명으로 '가장 많이 찾은 국내 관광지' 전국 2위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2021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은 우수사례 중 '공간 활성화' 부문에 해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고군산군도 연육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및 선유도해수욕장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38억을 들여 전체 2.49km의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다.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속한 내부도로 개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은 우수사례 중 '공간 활성화' 부문에 해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고군산군도 연육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및 선유도해수욕장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38억을 들여 전체 2.49km의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다.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속한 내부도로 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최선을 다할 것"

군산시, 시민 주도 방역 활동 지속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시민이 주도하는 방역 활동이 꾸준히 유지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방역안전점검사업 활동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까지 지속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방역안전점검사업은 27개 읍, 면, 동지역 주민 700여명으로 올해 구성돼 매월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지난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 이상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된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 방역안전점검사업 특별방역 점검기간을

지정해 매일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방역점검 기간 중 방역안전점검사업은 지역 음식점과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점 및 방역사각지역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경암동 '방역안전지킴이' 방역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철길마을 등을 집중 방문해 활동했다. 대야면 '큰돌방' 방역단은 상인 및 이용객들로 붐비는 대야 전통시장 주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예방수칙과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무더위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인들과 이용객들에게 안

전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월명동 '방역지킴이' 방역단은 이성당 부근 중앙사거리 일원, 초원사진관 부근 등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타지역 무증상인 가족, 지인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돼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과 초창치제 등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방역안전점검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방역안전점검사업의 활동으로 지역감염 확산방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대야 전통시장 주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예방수칙과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무더위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인들과 이용객들에게 안

익산시, '한방·녹차' 접목 국립 치유의 숲 조성에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한방과 녹차를 연계한 국립 치유의 숲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태·휴양 관광지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성 예정인 국립 치유의 숲에 한방과 녹차를 접목한다.

시는 차나무 북방 한계 근라자인 옹포면 할라산 일대를 활용해 치유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은 전액 국비로 조성되며

시는 국비 100억원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한의학과가 위치한 장점을 살려 이를 연계한 숲 조성에 나선다.

여기에 최북단 녹차 자생지와 산림문화체험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자연치유의 조화로운 도전을 한다.

이 숲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어 완료가 되면 치유센터와 숲속 수(水)다(茶)방, 공방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방문객의 건강을 측정하고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치유원, 야생화 정원, 야생녹차 정원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 숲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10곳(강원도 4, 충남 1, 충북 1, 전남 2, 경북 1, 울산 1)이 조성돼 있으며 현재 2곳(전남 화순, 부산 사하)이 조성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다음달 1일 제240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다음달 1일부터 제24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개최하고 제240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7개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배영원 의원의 '군산시 사지사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중신 의원의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

례안'과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우종삼 의원의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경우 의원의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증진지원조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 제2회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미등록 양봉농가 8월 내 등록 당부

군산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오는 31일까지 최종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8월 내 등록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양봉농가 등록제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8일 시행된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대상 농가는 양봉산업법에서 정하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양벌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 사육시설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나운2동 남초등 35회 동창회 마스크 기부

군산시 나운2동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남초등학교 35회 동창회(회장 김원호)가 '행복나눔 공유공간'에 KF-94 마스크 1,900장(환가액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탁된 마스크는 나운동 행복나눔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기탁사에 참석한 김원호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안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지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불감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나눔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석 나운2동장은 "아직은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린 귀한 마스크를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안전한 나운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